

들꽃편지

634

2021.11.22. 소설호

<http://cyw.pe.kr> 햇볕같은집



##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도 부족한지 ‘성전’ ‘제단’이라고 부르면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행17:24)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라고 해도 유럽 중세시대 성당만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당들이 지금은 관광지나 술을 파는 바(bar)로 변한 곳이 많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 주십니다.”(현대어성경 행17:25)

성전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몸’입니다.(고전3:16) 몸은 성령님을 담고 있는 통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그렇게 몸 안에 ‘숨’으로 계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호흡은 같은 것이 아니라서 따로 따로 언급한 것입니다.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숨을 쉬는 목의 구멍을 ‘기도(氣道)’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祈禱)하라’는 명령은 실천 가능한 명령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숨어계신 하나님’(사45:15)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 인간의 몸속 심장을 성전 삼아 거하게 되셨습니다.(행2:17, 행4:21, 갈2:22)

기독교강요에서 칼빈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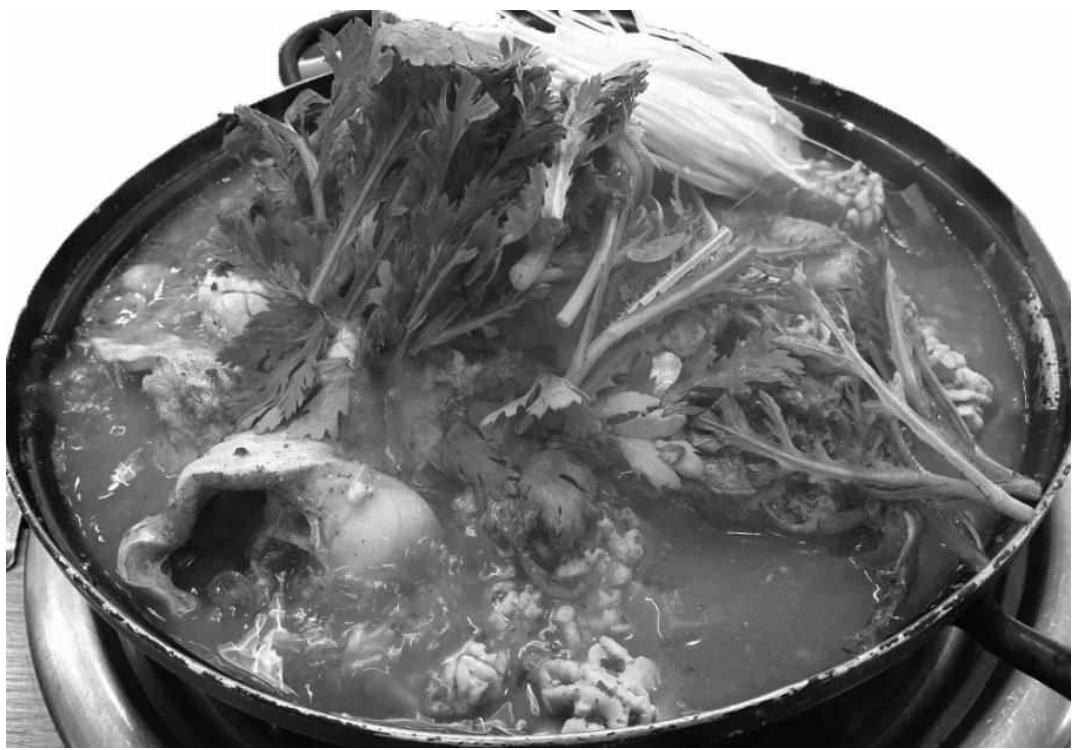
한 장의 지폐보다  
한 장의 낙엽이 아까울 때가 있다

이생진의 〈낙엽〉 중에서

## 동태찌개

동태에 두부에  
파 마늘에  
된장 고추장에  
콩나물까지  
한 냄비에 들어앉아  
얼씨안고서  
한바탕 끓고 나니  
동태찌개라.  
오, 맛있는 세상!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 25

아파트 입주민 할머니가 아침 일찍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에 갔더니  
오후 4시에 오라고 하여 4시에 힘겹게 갔더니 마스크가 다 팔렸다고 하여  
속상한 마음에 경비실에 들려 넋두리를 하였습니다.

“할머니 어쩌죠? 다음 주에 사는 수밖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집에 마스크 10개도 넘게 있잖아. 리필용 필터 마스크도 있고...”

“아, 그거요 저도 쓰고 다녀야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후 마음 가운데 아무 음성도 없었습니다.

목회할 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동네에 사시는 한 분의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녀들도 없고 나라의 도움으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호주머니를 주섬주섬 여시더니

만원짜리 천원짜리 심지어는 동전까지 내 놓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여 드리고 당연한 듯 받았습니다.

그분의 생활 형편을 안다면 마땅히 돌려 드리고

더 보탬이 되도록 베풀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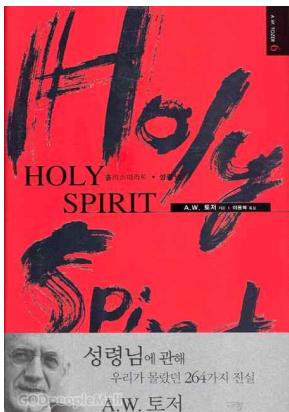
너무나 깜짝 놀라 다음날 마스크 5개를 아파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떤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Holy Spirit



토저 마이티 시리즈 6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96쪽 11,700원 규장 2005

성령님에 관해 우리가 몰랐던 261가지 진실  
이 뜨거운 책을 대하는 자들은 거룩한 변화  
의 격동을 받을 것이다.  
그의 성령님 증언은 성령 충만을 뜨겁게 간  
구하게 만들 것이며,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 것이다.

1. 이번 책도 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했나? 그랬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 부끄럽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부흥회에서 정말 뜨거운 불의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삶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흘러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위엄이 있나? 성령님으로 인해서 담대했던 적이 있나? 그리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따라간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책이었습니다.
3.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열정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는가?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가?
4. 토저의 이 책에서 영적 자만은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만족스럽다고 칙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토저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순종하듯!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5. 또 토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된 후에 뭘 해도 하라고 합니다. 쇳조각에 불을 세게 일으키면 처음에는 두 가지 물질이 따로 존재하듯 하나, 결국은 하나가 되듯이,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6. 오순절의 역사는 일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곳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를 느끼며 조용히 성령님을 확신하면

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때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감정을 느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7.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적인 삶을 지배합니까? 옳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 없이 영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손가락 없이 손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8.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감정 상태를 중시하는가? 마음 상태를 중시하는가? 성령 충만으로 본성(성질)을 뒤집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끓는 것입니다.

9.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 안의 악은 쫓겨나고 우리의 인격은 완성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마주 대하면 나의 교묘한 논리가 얼마나 불순종의 길을 추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10. 나에게 십자가는 객관적, 외형적, 제도적인가? 주관적, 내면적, 체험적인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안다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몸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11.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신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늘 새로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뒤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절망은 약이 됩니다. 그 절망에 우리 마음속의 강력한 적이 멸하고 성령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12. 거룩함이 약해질수록 나의 기쁨 또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앞세우고 영적 보물들을 두 번째로 밀어내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단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닥치는 최악의 재앙은 지금 현 상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13. 하나님은 오로지 나와만 상대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나와만 대화하십니다. 아닌가?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 의 의지 사이의 만남에서 나온 희락입니다. 나에게는 근신하고, 이웃에게는 정직하게, 하나님께는 경건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훈련합시다.

주님!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성령님과 매일 매일 잘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일본 니이가타교회)

## 대장장이의 기도

어쩔꼬 어쩔꺼나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그동안 내가 만든 수 많은 연장들  
그중에 하필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그 뜻이, 그 대못이 예수의 손에 박힐 줄이야.

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어루만져주셨던 그 따뜻한 손에  
내가 만든 가장 크고 튼튼한 대못이  
하필이면 로마 군병들의 손에 들어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데 쓰여질 줄이야

최용우 제5시집〈천양하라 내영혼아〉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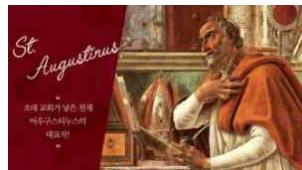
### [댓글]

**주원엄마** /대장장이의 기도. 맘이 참 아프네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뜻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잘 못한 것들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질하는 것이 아닐까 말이죠.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모자람** / 저가 오늘도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손에 못을 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이지요

**이춘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만 평계만 대고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손에 못 박힌 뜻이 18센치... 가슴이 막 아파오네요... 여기 들어오면 맘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감사.

##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 179. 주피터와 야누스 두 신을 구별하는 근거의 애매함

야누스와 주피터가 모두 ‘세계’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는 하나뿐인데 야누스와 주피터는 왜 별개의 신으로 저마다 다른 신전과 제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두 신이 종교적 의례도 신상도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 180. 주피터가 페쿠니아로도 불린다

주피터라는 이름은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원대한 이름이다. 그런데 주피터를 페쿠니아(돈)이라고도 부르는 까닭을 모르겠다. 말할 것도 없이 주피터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탐욕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그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만일 그에게 끝없는 금전욕이 있다면 가난한 것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만일 그가 현자라면 실제로는 부유하다.

### 181. 사투르누스, 게니우스 두 신은 주피터와 똑같다

사투르누스는 ‘파종의 신’이다. 그런데 주피터는 모든 종자를 스스로 내보내는 동시에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자이다. 주피터가 다 하는데 사투르누스 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게니우스는 ‘생성하는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신 주피터가 하는 일도 같은 일이다. 게니우스가 특별히 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182. 메르쿠리우스와 마르스

메르쿠리우스는 언어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다른 신들에게까지 미치고 주피터 조차 그 지배 아래 있어야 언어의 능력을 얻는다고 한다. 마르스는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다. 평화의 여신 펠리치타스가 영원한 평화를 보장한다면 마르스 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된다. (계속)

## 영의 세계 2



### 11. 영이 능력을 받으려면

배가 고프면 몸에서 힘이 빠져 일을 못하죠. 그러면 얼른 밥을 먹고 힘을 내야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이 능력을 받는 이치도 비슷합니다. 영이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소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소리로 들어온 말씀은 영에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할 때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소리’라는 재료가 영에 들어가야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을시다.

낮은 단계의 훈련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독서)입니다. 세계의 기독교 예배 순서에는 거의 ‘독서’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성경봉독’입니다.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던 15세기에는 ‘독서’를 10번 넘게 하는 예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톨릭에서는 3-4개 정도로 줄여서 ‘독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배 순서에서 ‘독서’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기독교는 ‘독서(독경)’으로 영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매 주일 제가 속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에는 ‘독서’가 3회 들어갑니다, 주보에 2-3쪽 분량의 성경을 실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긴긴 만담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영적인 현미밥을 먹는 것입니다.

높은 단계의 훈련은 ‘방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소리가 내 영에게 흡수되어 영의 기능이 강화되고 힘을 얻어 믿음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의 곁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소리’입니다. (7042)

## 12. 성령충만 내영강만

우리는 흔히 ‘성령충만’ ‘은혜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충만(充滿)이란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데(고전3:16) 또 무엇이 들어와서 찬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성령이 충만해졌다** -라는 말은 내 영이 민감해졌다. 영이 예민해졌다. 영이 열렸다. 영의 흡수력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로 부흥회나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쉽게 ‘성령충만’해지고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은혜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영이 활성화 된 것이지 영이 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갑자기 영이 활성화되어 열리면 영이 쉽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언어와 사람과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특정한 교주가 있는 이단(似而非)에 속한 사람들이 교주의 말빨에 속아 교주를 하나님처럼 따르면서 집 바치고 재산 바치고 통장 바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2. **영이 강해졌다.** -성령이 활성화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성령충만 내영강만**입니다. 내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성령은 어느새 소멸해 버립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말씀묵상과 방언기도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단기간에 성령충만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단련된 고수들의 그 내공(內功)은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쉽게도 한국 기독교계에는 그런 고수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숨어있어서 안보일까요? (7043)

## 13. 영적 상상력 1

우리의 의식은 상상(像想)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인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영과 혼은 형체가 없기에 내가 알 수 없지만, 상상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합니다. 이는 마치 공기 중에 전파가 수신기를 통해 소리도 되고 화면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한 기능입니다.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과 영과 혼을 감지할 수 없으니 상상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상상력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가, 시인들에 많습니다. 또한 여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많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저는 시인(詩人)이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많은 양의 독서와 낮은 정신연령(?) 그리고 주변에 맨 여자들만 있는 환경(집에서 여자 취급을 당함) 그리고 좀 더 있는 ‘종교심’ 때문에 상상력이 조금 풍부한 편이라서 아주 쉽게 관상 상태에 들어가고 영적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심령의 고민이 느껴지고 이름만 불러도 대충 그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상상력이 조금 더 발달해서일 것입니다.

상상력은 영과 혼을 연결시키는 통로이고, 성령과 영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수신기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너무 많으면 마귀가 상상력을 이용하여 귀신에 사로잡히게도 합니다. 흔히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목표가 이끄는 삶’ 같은 ‘신념주의’는 바로 이 상상력의 작용을 개발시키자는 것입니다.(7044)

## 14. 영적 상상력 2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사모님을 상상력을 이용하여 치유했다는 부분이 <치유의 빛/아그네스 펜포드 지음>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프랜시스, 바바라 술레몬, 찰스 크래프트의 책에도 상상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로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강조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릭 위렌>도 결국에는 ‘선명한 목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형이하학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형이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상력이라는 이미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오해가 일어납니다. 저는 기독교는 ‘형이상학의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당장에 ‘신비주의라니 너 이상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동시에 혼적입니다. ‘영적인 상상력’은 십자가 대속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이미지화해서 논리적, 감성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적 상상력’은 육적인 욕심과 결합되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대(大)교회 주의’는 맘몬이즘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힘, 권력’을 쫓는 그것은 혼적 상상력입니다.

영적 상상력은 언어와 함께 사용되면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영안을 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관상기도에서 ‘렉시오 디비나’(학습적 관상)는 바로 영적 상상력에 기대서 하나님을 만나려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영적 상상력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를 받는 통로입니다. (7045)

## 15. 영적 집중력

1. 신기한 것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판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른 설교자들도 다 그럴 겁니다. 청중의 숫자가 너무 많아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는 대형교회 설교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런 면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100명 내외의 교회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2.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고, 설교 시간에 판 생각을 하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취침모드에 들어가고, 성경 한 페이지 넘어가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영적 경험도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는 것은 ‘영적 집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칭 타칭 시인(詩人)인데 시를 못 씁니다. 시를 한번 써 보려고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정말 한 단어도 안 떠올라서 툴툴 털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홉권이나 되는 시집은 뭐냐? 그냥 어느 순간에 시가 제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얼른 받아 적습니다. 어느 날은 한 자리에서 20-30편을 받아 적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일 한편씩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도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잔뜩 받아놓은 시 중에서 하루에 한 편씩 골라 올리는 것입니다.

영적 집중력을 훈련하면 강한 영감과 영력이 흘러나와서 첫째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둘째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생기며, 셋째는 순식간에 영적 전투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04)

## 16. 영적 집중력 훈련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단숨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이 만족할 때 까지 수없이 수정하기를 계속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문장의 군더더기를 제거하여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내용도 시인은 단 몇 줄로 단순화시켜버립니다. 영적 집중력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집중력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는 ①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라. ②신비의 참 모습을 경험하라. ③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라. ④사소한 거짓말에도 넘어가지 마라. ⑤영적 청각을 회복하라. ⑥온종일 하나님을 기대하라. ⑦현실에 깊이 뿌리 박으라. ⑧마음속 하

나님의 위치를 파악하라. ⑨삶의 자유를 마음껏 축하하라. ⑩마지막 순간까지 달음 질하라... 라고 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결코 영적 집중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영적 집중력을 갖는다해도 그 질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세상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신경 안 써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특히 ‘정치’에 신경 끄세요. 정치는 답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신문이나 뉴스를 안 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방언기도는 영적 집중력을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방언기도는 단계를 따라 올라갑니다. 낮은 단계의 방언인 룰루랄라 방언이나 단순한 혀떨림 방언 단계를 넘어가면 좀 더 고급스런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에 대한 좋은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7047)

## 17. 영적 전이(轉移)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3:20) 저는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 다양한 분들과 만날 기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교단 교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전이(轉移)받습니다.

1. 언어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언어 속에는 자신이 속한 곳의 영적 색깔(성질)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보수적인 어떤 교단 분들을 만나보면 젊은 사람까지도 한결같이 50년대 사고에 머물러 아직도 ‘빨갱이’ 타령을 하기도 합니다.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 소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언어 속에 있는 ‘육적 감정’과 ‘영적 느낌’도 같이 전달, 전이됩니다.

2. 시선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눈으로 바라본 그 대상의 본질이 자기에게 전이가 됩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사진을 구해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면 언젠가는 그것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덴동산의 하와도 선악과를 계속 바라보다가 선악과가 주는 불행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3. 터치(안수) -육체적 접촉은 아주 강한 전이가 일어납니다. 특히 선포의 말과 함께 접촉하는 것은 더욱 강렬하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의 담임 목회자에게는 소속된 교인들에 대한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축복(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은 가족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식구들을 자주 터치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력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안수했다가는 자신의 기를 다 뺄릴 수도 있습니다.(7048)

## 18. 영적 전이 네 가지

1. 성품 전이(轉移) -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과 나의 성품이 서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누구를 자주 만나는지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2. 영적 전이 - 기도해주거나 악수할 때, 악수하는 자의 영이 악수받는 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영이 안 좋은 사람의 악수를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매주 설교를 듣는 본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좋은데 그러나 목회자의 영적 힘이 약하면 악수를 해도 영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 능력 전이 -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서로 능력을 주고 받기를 원하면 능력전이가 됩니다. 주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능력 전이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능력자가 되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능력 전이가 일어나면 많은 시간 고생을 하지 않아도 쉽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능력 있는 스승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4. 장소 전이 - 어느 장소든 그 장소에 흐르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가면 기도가 쌓여 있어서 쉽게 기도의 전이를 받고, 친양이 강한 교회에서는 친양의 전이를 받습니다. 한번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된 교회는 곧 또 분열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갔더니 천사의 영이 가득하여서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습관적으로 천사들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좋은 영이 쌓인 장소를 골라 가야 합니다. (7049)

## 19. 영적 전이의 이치

1. 악한 것은 쉽게 전이(轉移)가 되고 좋은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금방 드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강한 것이 악한 쪽으로 전이가 됩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 영적으로 가깝거나 하나인 경우는 쉽게 전이가 됩니다. 같은 지역 사람이면 이심전심 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4. 상대방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오픈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이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이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 권위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권위자의 영적 성향과 색깔을 쉽게 내려받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있는 나쁜 것이 먼저 전이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터락한 본성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 나의 상태가 좋으면 상대방의 좋은 것이 쉽게 전이가 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8.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전이할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 받는 강도가 다릅니다. 안주면 못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9. 같은 종류끼리는 전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색이 같으면 같은 계열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0. 세 가지(말, 시선, 터치)를 동시에 할 때 강력한 전이가 일어납니다. 서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049)

## 20. 영적 파동(波動)

진동이 물질을 따라 전달되는 현상을 파동(波動)이라고 하는데 호수의 물결이나 바다의 파도는 퍼져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경우이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핸드폰 등에 사용하는 전파(電波)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파동으로 전이가 되는데 그것을 영파(靈派)라고 합니다.

자연 파동이나 전파는 장소와 거리의 영향을 받는데, 영파는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조직이나 글이나...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부르면 지금 영파가 바로 옵니다. 예를 들면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예수원의 영적인 파동이 지금 나에게 와서 "예수원 가고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그 사람의 고유한 영적 파동이 옵니다.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좋은 파동이 오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 나쁜 파동이 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저의 영의 파동을 받습니다.

파동은 같은 것끼리, 같은 레벨끼리는 공명을 하며 같이 흐르거나 커지고, 반대의 것은 흐름이 깨지면서 고통을 주거나 사라집니다. 같은 파동이면 서로 익숙해집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의 파동, 마귀의 파동, 혼에서 나오는 파동이 있는데 내가 어떤 파동에 공명하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 가치와 생각의 패턴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파동에 공명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끊임없이 새 물을 흘려보내면 결국에는 깨끗한 물로 바뀝니다. 안 좋은 환경과 사람과 상황이라도 내가 그 파동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50) ©최용우

---

## □웃낀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가족 소풍 (사진:최용우)

### 가족소풍

세종호수공원에는 여러 가지 조소 작품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족 소풍’이라는 작품이 마음에 듈다.

〈따뜻한 5월 봄날 가족들이 공원에 소풍 와서 평화롭게 가족사진에 소중한 추억을 담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유년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듯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바램으로 작품 제작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문과 함께 5명의 작가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표시가 있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가족 소풍을 갔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내와 두 딸에게는 ‘가족 소풍’의 기억을 많이 남겨 주고 싶어서 자주 가족 소풍을 갔었다.

둘러보니 공원에 ‘가족 소풍’을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다.

## 내 생일

울타리에 붉은 장미 흐드러지게 핀 것 보니  
별로 반갑지 않은 나의 생일이 벌써 되었는가  
아내와 아이들이 케잌에 초를 꽂는데  
아이고, 그 갯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아내 몰래 슬며시 초를 뽑아내다 들켰다.  
“나이값 좀 하세요”  
초를 뽑아내지 말고 나이값 하라는  
아내의 생일 기념 잔소리 선물!

(2010.6.3)

최종은/생일이 왜 안 반가워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있는건데~~~ 아빠 생신축하해요~  
아니 좀 더 젊은 느낌으로 생일 축하드려요~  
맷글/어른들은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단다... 나이만 먹고 나이 값 못하고 사는 것 같  
거덩..  
최밝은/축하해요 생신축하드려용 영원히 늙지마세요

## 회복(回復)

강요셉 목사님의 <몸속 독소 배출하면 천국된다>를 읽고 있는데, 마음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면 모든 병은 다 회복된다고 한다. 인간의 각 신체 부위별로 독소가 쌓여서 병이 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면 당연히 병은 치유가 된다. 나 같은 경우는 폐와 심장이 약하다.

책에는 <태중에서 두려움과 불안의 상처를 당하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심장이 약한 경우가 많다. 잠재의식 속에 그 상처가 쌓여있어 생긴 독소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자신의 몸속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독소를 녹이고 배출하시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6월에 뇌출혈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온갖 검사를 받는 과정에 심장기능이 많이 약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에 관련된 약을 먹고 있다. 한 번도 나의 심장이 약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고혈압에다가 배도 나오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몸 중에 가장 약한 부분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나는 심장인 셈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것일까?

어머니는 1급 중증 장애인이신데 한번 결혼을 했다가 쫓겨난 후로 떠돌이 옛장수를 만나 결혼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작은 집에서 대충 살림을 차려놓고 살며 나를 낳았다. 장애인이기에 혼자 살 수는 없고 어쨌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면 한달에 한번이나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 혼자 나를 낳고 스스로 태를 자르셨다는 얘기를 이모를 통해 들었다. 혹시나 하고 집에 들렀던 이모가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빨간 장미꽃이 피는 4월(양력으로는 5월) 나의 생일이 되면 나는 기쁨보다는 어떤 슬픔이 가득하다.

나는 어머니 태 속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60년대엔 장애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인지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생일에 대한 시나 글을 쓰면 글이 슬프게 나온다.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나의 생일을 생각만 해도 먹먹해진다.

어쨌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 같은 독들이 심장에 쌓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독소를 녹이고 배출시켜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눈물이 흘러나온다.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과 섭섭한 감정들이 막 느껴지면서 복받친다. 진짜로 내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나 보다.

“주님, 제가 태아일 때 당한 일들이 확실하게 독이 되어 제 심장에 쌓여 있는 것이 확실하군요. 주님!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분들도 그때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 제 심장에 쌓인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과 섭섭한 감정의 독소를 녹여 주시고 깨끗하게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엉엉 울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검은 것들이 눈물과 함께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문득 오래전에 내가 썼던 생일시 한 편이 떠올랐다.

## 내 생일

울타리에 붉은 장미 흐드러지게 핀 것을 보니  
별로 반갑지 않은 나의 생일이 벌써 되었는가  
아내와 아이들이 케잌에 초를 꺾는데  
아이고, 그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느냐

그런데 그 시에 큰딸이 **최종은/생일이 왜 안 반가워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건데~ 아빠 생신 축하해요** 라는 댓글을 달았었다는 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나의 아픔을 딸의 댓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댓글이 갑자기 생각이 나다니.

마치 오늘을 위해 10년 전에 준비해 둔 것 같은 댓글에 또 눈물이 나왔다. ‘아빠가 있어서 자신이 있는 것이며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빠 덕분이니 아빠 생일이 반갑다’는... 아빠의 존재를 반가워 해주는 댓글... 참으로 고맙다. (2010년이면 좋 은이가 중학생 때이다.)

이제 심장의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고혈압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몸무게를 88kg에서 70까지 줄이는 중 6개월만에 75kg까지 내려왔고, 하루 6km 걷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으며, 식단을 확 바꾸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으니 조만간 내 몸은 확실하게 회복(回復)되고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 썩을놈의 마귀새끼

용수천 변 사람 없는 곳으로 운동을 다니면서 계속 ‘심장에 있는 독을 빼는 회복기도’를 하는 중이다.

독이 빠져나가는 증거로 눈물이 나거나 악한 영이 확 밀치고 나가기도 한다는 내용이 김요셉 목사님의 책에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좋은이의 댓글이 생각나서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실컷 눈물을 흘린 날 저녁에

다이소에서 쪼그리고 앉아 어떤 물건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확 넘어졌다. 분명 누군가가 쎄개 확! 민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람들이 쳐다봐서 얼른 도망쳐 나왔다. 에잉 쪽팔려라~~ 다음 날도 별로 몰랐는데 세번째 되는 날인 어제는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을 만큼 아팠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만큼 아팠다.

오늘은 영상의학과의원에 갔다. 엑스레이 씨티 찍고 정밀검사까지 했는데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어떤 이상도 없었다.

분명해! 마귀가 빠져나가면서 해꼬지 한 거야! 썩을놈의 마귀새끼!



## 좋은성경

큰딸 최종은이가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는 ‘독립’을 하면서

“아빠, 이제 저도 학생용 성경이 아닌 어른 성경이 한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 좋은이의 성경책이 고등학

교 때 교회에서 받은 휴대용 미니 성경이었다. “그래, 아빠가 성경책 한 권 적당한 것으로 사 줄게. 준비해 놓을게. 다음에 내려와서 가져가라.”



오늘은 좋은이의 성경책을 사러 일부러 대전에 있는 기독교서점까지 갔다. 평생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는 적당한 성경책을 고르게 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와우! 정말 다양한 성경이 한 100종류는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성경책 이름이 ‘좋은성경’이 있었다. 뭐야, 좋은이 성경책이 딱 있었구만! 가격이 4만원이나 되었지만 ‘좋은성경’을 사 왔다.

그리고 성경의 맨 뒷장에 성경책 가격보다 더 많은 거금(?)을 살짝 숨겨서 붙여 놓았다. 좋은이가 성경을 잘 본다면 아빠의 깜짝 선물을 금방 발견할 것이고 잘 안 본다면... 그래도 언젠가는 발견하겠지. ^^

## 신나는 꿈

내가 젊었을 때 약 3년 동안 탔던 세 척의 배는 모두 25만톤급 유조선이었다. 배 길이만 350미터가 넘고 가로는 50미터가 넘었다. 새해 첫날엔 배를 10바퀴씩 도는 5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했을 정도다. 한 마디로 배 안엔 있을 건 다 있는 작은 왕국이었다.



어젯밤에, 무척 큰 배였다. 내 앞에는 거의 1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인종과 나이와 국적과 직업을 초월하여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배에 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따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자산을 3조원이나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나도 내가 그런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적극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까 서로 의논 하다가... 잠에서 깨부렸다. g~

## 들꽃세상

천안에서 성남면 방향으로 가는 길에 <식물원 들꽃세상>이라는 이정표를 발견하고 즉시 차를 돌려 ‘들꽃세상’을 찾아갔다. 한참을 가니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입구에 자그마한 ‘개인 수목원’이 있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가니 주장이 나오더니 “우리나라 백두대간 야생화들을 모아서 만든 수목원입니다.”라고 한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었다. 한라산에서 가져온 것, 설악산에서 가져온 것...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신다. 지금은 꽃이 없는 시기라서 흉~ 하지만, 봄에 오면 그야말로 장관이라 한다.

수목원 밖에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었다. 으름나무로 그늘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렁주렁 달린 으름을 따먹어도 된다고 해서 몇 개 따 먹었다.

아내와 함께 봄에 다시 한번 오기로 하고 돌아왔다.



## 돈 넣어줄 사람

딸2호가 집에 오면서 아빠의 지갑을 하나 사 왔다. “이거 비싼거에요. 곁에 아빠 이름 이니셜까지 찍었어요”

나는 지갑이든 가방이든 한번 내 소유가 되면 그냥 천년만년 쓴다. 지금 쓰고 있는 지갑도 너덜너털 최강 청테이프로 뜯어지고 닳아진 곳을 붙였는데 그것도 다 닳아서 투명테이프로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밝은이가 본 것이다.

와우~ 새 지갑이 생겼다. 돈도 좋은 지갑을 좋아해서 부자들은 몇백만원짜리 지갑을 쓴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어쨌든 좋은 지갑이 생겼으니 이제 돈들이 이 지갑에 들어가고 싶어서 막 나에게 몰려오겠지?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그런데 카드 끊는 곳이 잔뜩 있다. 카드만 쓰라는 뜻인가?  
어쨌든 새 지갑에 누가 돈 좀 넣어 주세우우~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523회 비학산218 2021.10.26

▲제524회 원수산(251m)

세종시는 가까운 거리라도 어디든 자가 용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대중 교통으로 원수산 가는 방법을 찾다가 포기했다. 평일에는 아내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집에 있는 토요일이나 운전을 하여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심 차를 이용하고 싶어 “다음 주에 장성 백양사 가서 단풍을 실컷 보자구요. 오늘은 내가 차를...” 라고 말했다가 아내가 섭섭해해서 그냥 눈치를 보다가 “원수산 가고 싶은데...”

겨우 아내의 허락을 받고 후딱 다녀왔다. 세종소방서 들입으로 산을 올라 정상에서 사진 찍고 빵하나 먹고 다시 세종소방서 원점 회귀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아빠들이 많아진 것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 곳곳에 산국꽃이 완전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2021.10.30.)



▲제525회 유계산(250m)

유계산은 성덕교 건너 왼쪽에 있는 산인데 걸어보기에는 약트막해 보이지만 전월산, 원수산과 거의 높이가 비슷한 산이다. 날마다 성덕교 건너 오른쪽 뚝방길을 걸으며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왼쪽 유계산을 오르고 싶었다.

몇 년 전에 유계산 정상 표지판을 내가 만들어서 박아 놓았었는데, 오늘 가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수많은 산악회 태그만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있었다. 혹 바람에 떨어졌나 사방을 살펴보아도 없었다. 정상 표지판을 맷돼지가 떼어갔을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떼어간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2021.10.31.홀로)





▲제526회 비학산219 2021.11.5.

### ▲제527회 운주산(460m)

아내와 함께 운주산에 올랐다. ‘구름이 머무는 산’이라는 뜻의 운주산(雲駐山)은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걷는 내내 울창한 숲과 가을 경치를 즐기며 수북히 떨어져 아무도 밟지 않은 낙엽 양탄자 길을 원 없이 밟을 수 있었다. 정상에서는 천안과 청주를... 운무가 끼어서 볼 수는 없었다.

산 중턱의 고산사 주차장에 차를 댔다. 각설이 품바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차장에서 뛰노는 고양이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 고산사는 규모는 작지만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신라군과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하다 산화한 백제군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절이다. 그렇다. 운주산성은 ‘백제’라는 나라가 멸망했던 ‘마지막 순간의 장소’이다. 그래서 정상에 ‘백제의 열 상징탑’이 서 있다. 참으로 슬픈 역사를 간직한 산이다. (2021.11.6.)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소설(小雪)-첫눈이 내리는 날

첫눈이 내린다 하여 ‘소설’입니다. 소설은 작은 눈, 대설은 많은 눈이 내리는 절 기입니다.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 호박, 오가리, 꽂감 말리기등 대대적인 월동준비에 들어갑니다. 뭐니뭐니 해도 ‘김장’은 가장 큰 일이지요.

옛날에는 1년 동사를 끝내고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달이라 ‘상달’이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달이라 하여 ‘공달’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한 농부들의 ‘방학’인 셈입니다. 1년 365일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1년에 한달 쯤 방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②표지사진 이야기



세종에 있는 <지혜의 숲>입니다. <지혜의 숲>은 4층과 5층을 툭 터서 만든 900여평 규모로 음악과 독서, 그리고 커피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고 세미나 공간도 대여가 가능한 도심 속에 문화 생활 공간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높이 8m크기의 메인 서가가 주위를 압도하면서 한 눈에 들어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책은 어떻게 꺼내요?” 하고 물었더니 분기별로 위아래 책을 바꾸어 놓는답니다. 주로 이용가치보다 보존 가치가 있는 학술도서가 꽂혀 있는 메인 책장을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6쪽 14600원 -11월5일 발행!

54.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밤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53.일출봉에 헛별이 짹하오 207쪽(올컬러) 13600원 -9월17일 출간

52.일상의 행복 207쪽(올컬러) 13600원 -7월8일 출간

51.예수님의 말씀들 듣는 산행 534쪽(올컬러) 31800원- 5월6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39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살림 드러내기 -2021.10월 재정결산

2021년 10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② 박신혜 신명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효숙 조인훈⑥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예사전선교회 장사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29분이 2,340,68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현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찍’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1.11월15일 현재 7088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55 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6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 문서, 인터넷, 북방선교, 선교사, 아동 각1곳씩)

⑥기독교피정쉼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❷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쟁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새로 나온 책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최용우 지음

피피북

햇볕같은이야기22  
최용우 지음  
326쪽 14,600원 교보문고 퍼플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직접 사시는 것을 보여 주신 가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밥 먹고, 예수님처럼 싸고, 예수님처럼 자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재벌 2세’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기난하게 된 나를 구원하여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기난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기난한 나는 기난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과 성정을 가지고 살다가 죽임 당하신 다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기록입니다. 구름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신약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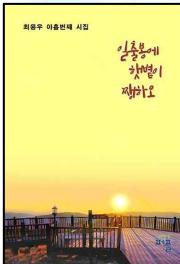
# ◆ 최용우 저서



## 일상의 행복

오늘 나는 참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찾아보는 즐거움과 행복을 단순하게 보여 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600원 210쪽(컬러)퍼플



## 일출봉에 햇볕이 쟁하오

세종시 금남면 용포죽티마을 뒷산 비학산 일출봉을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를 썼습니다. 꽃과 별레와 동물과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얘기들이 정겹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13,600원 210쪽(컬러)퍼플



## 따뜻한 밥상-아침밥1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맛집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호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1년 동안 역대상 11장까지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 따뜻한 밥상-아침밥2

허릇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씀 밥상을 치렀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씀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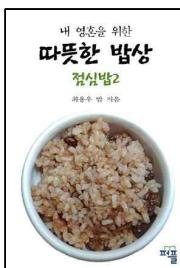
17,300원 398쪽 퍼플



## 따뜻한 밥상-점심밥1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하루 한쪽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도 영혼에 양식이 되는 순수 말씀 중심 묵상집입니다. 시편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 따뜻한 밥상-점심밥2

묵상은 깔대기와 같아서 단순히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자식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398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볕같은집>에서 발행합니다.

\*햇볕같은집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죽티2길 5-7번지 기독교평정센터(햇볕같은집)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4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 창간)